

研究論文

# 해외한국학 동향 분석 및 발전요인 연구

곽수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해외한국학지원실 연구원, 국제학 전공  
ksm@aks.ac.kr

I. 머리말

II. 해외한국학 동향

III. 해외한국학 발전요인과 사례

IV. 해외한국학 지원정책에 관한 제언

V. 맺음말

## I. 머리말

해외에서의 지역 연구는 해당 지역의 실용적 수요와 학문적인 요구가 더해져 발전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져야 그에 따르는 학문적·제도적인 장치나 범위도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해외한국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여러 나라에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고, 한국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연성권력(소프트파워) 이론이나, 문화적인 교류를 통한 자국의 이익 도모 혹은 공생의 중요성은 내부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충분히 각인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1980년도부터 한국정부는 해외한국학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에는 새롭게 한류의 분위기에 힘입어 자국 문화에 대한 타국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다방면에서 내놓고 있다.

1980년대에 ‘한국학’의 개념은 ‘국학’보다 객관적인 의미를 지닌 지역학의 의미가 더해져 자리 잡았다.<sup>1)</sup> ‘해외한국학’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는 지역과 주제, 대상을 구분으로 하는 정의가 제시되는데, 김동택은 ‘외국인에 의해 추구되는 한국에 대한 학문, 그리고 한국인이 한국에 대해 외국인이 추구하는 한국학을 의식하는 비교사적 관점의 연구’<sup>2)</sup>를 해외한국학으로 보았고, 이길상은 ‘외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넓은 의미의 한국 관련 연구’<sup>3)</sup>로, 조지형은 ‘한국의 또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총체적인 학문’<sup>4)</sup>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해외한국학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류 붐으로 인해 해외 일부 지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이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하고, 아직까지 일본학·중국학에 비하여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함이 강조되기도 한다. 한국어와 한국학의 구분이 생기기도 하고,

---

1) 김중순, 「문화학으로서의 한국학: 특히 동아시아 한국학을 위하여」, 『한국학논집』 제38집(2009), 199쪽.

2) 김동택, 「한류와 한국학: 해외한국학 현황과 지원 방안」, 『역사비평』 Vol. 74(2006), 229쪽.

3) 이길상, 「21세기 한국학의 진로모색」,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국제학술회의(2006).

4) 조지형, 「미국에서의 한국학의 흐름과 전망: 안과 밖의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미국사연구』 Vol. 15(2002), 176쪽.

한국학 수업이 일부 한국어 과정에서부터, 각 학문 분과의 개별 연구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학문적 정체성의 논란에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해외한국학 논의 환경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해외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 관련된 모든 수업, 즉 최대한 넓은 의미의 해외한국학을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 해외한국학 범주에 속하는 현상에 대한 양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후 일부 우수 사례를 살펴보는 질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주요 대학들의 한국학 발전요인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해외의 대학 중에는 한국학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사멸의 양상으로 흐르는 곳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해외의 한국학은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이 중 한국학이 발전한 경우가 있다면 그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글은 해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한국학 동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외한국학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이전에 수행된 해외한국학 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 II. 해외한국학 동향

해외한국학 동향 분석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10년 발행한 *Korean Studies Abroad*와 국제교류재단에서 2007년 발행한 『해외한국학 백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 중 불충분한 정보는 제외하고, 충분한 정보가 탑재된 해외한국학 대학(연구소, 학회 제외) 313개를 기준으로 하였다. 두 자료는 조사 시기와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최근 조사된 *Korean Studies Abroad*(2009년 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외한국학 백서』(2005-2006년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학마다 답변의 수준이 다르고, 작성 범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해당 자료를 판단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또한 이 연구는 자료조사에 응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와 다소 오차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해외한국학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 분류기준과 분석결과

해외 대학의 한국학 현황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한국과의 국제관계나 한국정부 지원정책의 결과, 그리고 해당 지역의 특수한 학문적 기반에 따라 그 여건이 다르므로 수평적인 비교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한국학은 국가 이미지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정부는 시간과 예산을 들여 해외한국학 진흥을 도모했던 것이다. 또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해외의 대학을 평가했을 때, 그 차이점과 지역적인 특징을 보다 확연히 구분해볼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양적인 분석이 향후 해외한국학 지원 방향을 가늠하는 데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전공과정 설치 형태(Academic Status)

해외에서 한국학은 일부 한국어 수업이나 교양 수업, 동아시아학의 일부 등으로 시작하여 부전공이나 학부 전공, 혹은 학부 전공은 없는 형태로 대학원 과정에만 존재하기도 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해외한국학을 분류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 세 단계로 전공과정 설치 형태를 나누어보고자 한다. ① 한국학 학위 이전 단계로 한국학 과목이 교양·선택 수업으로 개설되거나 일부 언어과정, 혹은 부전공 과정으로 개설된 경우, ② 학위 취득 단계로 학부나 석사과정에 한국학 학위 취득과정이 설치되어 있거나 관련 분과 내에서 한국전공을 선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③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여 해당 분야의 한국학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내고 있는 단계로 나누어본다. 단,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출되는 인력이 적고, 학부·석사 과정이 중점적으로 운영될 경우 두 번째 형태에 포함시켰다.

학위 설치 단계를 조사한 결과 한국학 전공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 313개 대학 중 155개교(49.5%)에 해당되었다. 또한 학위 이전 단계도 40.5%에 달해 아직까지 많은 대학에서 한국학은 학위 취득이 어려운 선택과목 수준으로 학문적인 입지가 취약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학문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박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는 대학은 31개교(9.9%)에 불과해 한국학의 학문적 재생산

표1-해외한국학 대학 전공과정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학위 이전	학위 설치	박사과정 운영
전공과정 설치 형태	127개(40.5%)	155개(49.5%)	31개(9.9%)

능력의 취약성을 볼 수 있다. 31개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배출 대학의 국가적인 분포도는 북미주 9개교, 일본 7개교, 유럽 지역 7개교 등으로 서구권 국가에 편중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sup>5)</sup>

## 2) 전임 교원의 수

두 번째는 현지 대학의 한국학 담당 교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시직 교원이나 행정지원 인력은 제외하고 한국과 관련된 연구 분야를 기술한 조교수급 이상의 전임 교원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해당 학과의 핵심적 인적 자원의 정도는 ① 교원 0-2명, ② 교원 3-5명, ③ 교원 6명 이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학교마다 인력 고용의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전임 교원보다 월등한 수의 시간강사나 임시 고용 인력이 수업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 여건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고용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해외한국학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에서 제외하였다.

조사결과 해외 한국학 대학의 전임 교원의 수는 2명 이내로 구분되는 경우가 70.9%에 이른다. 특히 교내에서 전공 간, 학문 간 경쟁이 치열한 서구권 대학의 전임 교원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가의 통제 아래 대학이 운영되는 환경에서 교수와 강사의 비율을 살펴볼 때 오히려 한국학 교원의 고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여유로

5) 한국학 분야 박사학위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 31개 대학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Warsaw, (카자흐스탄)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프랑스) Paris VII Diderot University, (독일) University of Hamburg, Ruhr-University Bochum, (불가리아) Sofia University, (영국) University of Oxford, University of Sheffield, (미국) Harvard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호주) University of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일본) Ritsumeikan University, Kyushu University, University of Tokyo, Kyoto University, Hitotshbashi University, Osaka University,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중국) Yanbian University, (인도) University of Delhi.

표2-해외한국학 대학 전임 교원 수에 따른 분류

구분	0-2명	3-5명	6명 이상
전임 교원의 수	222개(70.9%)	64개(20.4%)	27개(8.6%)

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5-2006년과 2009년에 수집된 두 자료를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학 교수·강사진 목록의 변동이 극심했다. 특히 전임 교원 이하 강사 위치에 있는 한국학 교원들은 3-4년 내에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인력 환경은 현재 해외한국학 운영 기반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또한 해외한국학 수업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해외 대학들은 현지에서 한국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교원을 찾기 어려우며, 안정적인 조건을 제공할 만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6명 이상의 전임 교원 수를 확보한 대학을 살펴보면 북미주 6개교, 중국 8개교, 일본 5개교, 러시아 지역 4개교, 대만 2개교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상대적인 강세가 관찰되었다.<sup>6)</sup>

### 3) 개설 과목의 다양성 및 심도

세 번째 기준으로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한국학 커리큘럼의 범위와 심도에 주목한다. ① 한국어 과정을 제공하는 단계, ② 한국어 과정에 덧붙여 입문 형태의 인문학·사회과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일부 독립 분과에서 인문·사회과학 수업이 비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③ 어학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한국 관련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 과목이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보다 다양하게 전문지식을 심화시킬 수

6) 6명 이상의 전임 교원 수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 27개 대학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Sakhalin State University, Far Eastern State University of the Humanities, Khabarovsk, (키르기스스탄) Bishkek Humanities University, (영국) University of London, SOAS, (일본) University of Tokyo,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aseda University, Keio University, Kyoto University, (중국) Peking University,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Minzu University of China, Yanbian University, Dalia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alian University of China, Shandong University at Weihai, (대만)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Chinese Culture University, (태국)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미국)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niversity of Michiga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표3- 해외한국학 대학의 개설 과목 다양성에 따른 분류

구분	한국어 강좌	일부 인문·사회과학 강좌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강좌
개설 과목 다양성	149개(47.6%)	128개(40.8%)	36개(11.5%)

있는 경우로 나누어본다.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의 결과처럼 해외의 한국학은 아직까지 한국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47.6%의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만 개설되어 있고 인문학적 관심으로 확장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한국학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동시에, 한국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어는 한국문화에 관한 이해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자, 그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절실한 수단기도 하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어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졸업 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대학이 다수 있었다. 한국어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으나 일부 인문·사회과학이 함께 시도되고 있는 128개 대학(40.8%)은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외한국학 범위 확장을 위한 1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커리큘럼이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된 36개 대학은 북미주 12개교, 유럽 지역 12개교, 러시아 지역 5개교, 중국 4개교, 일본 2개교 등으로, 분야의 다양성은 역시 영미권의 학교들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sup>7)</sup>

위 세 기준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현 시점의 해외한국학은

7) 인문·사회과학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 36개 대학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Buryat State University, Moscow State University, (카자흐스탄)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영국) University of London, SOAS, University of Oxford, University of Sheffield, (체코)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프랑스) Paris VII Diderot University, EHESS, (독일) University of Hamburg, Ruhr-University Bochum, University of Tubingen, Goethe University Frankfurt, (헝가리) Eotvos Lorand University ELTE, (폴란드) Adam Mickiewicz University, (미국) Columbia University,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arvard Universit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rinceton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멕시코) College of Mexico, (중국) Peking University, Nanjing University,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Minzu University of China, (일본) University of Tokyo, University of Washington, Kyushu University.

“일차적인 학위과정을 통해 전임 교원 2명 이하의 인원과 다수의 강사진이 한국어를 중심으로 일부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형태”가 가장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각 기준이 1에서 3으로 변화해간다는 가정 하에, 위의 결과를 활용하여 대학을 초기·발전·성숙의 세 단계로 분류해보았다. 세 가지 요인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에 대해 1에 해당하면 초기단계로 분류하고, 세 기준이 모두 3에 해당하면 성숙단계로 분류하는 방법이다.<sup>8)</sup> 기준이 각각 다른 단계가 될 경우 중간값을 매겨 포함시켰다.

표4-해외한국학 설치 대학의 단계별 분류

구분	초기단계	발전단계	성숙단계	계
미주	45개(48.3%)	43개(46.2%)	5개(5.3%)	93개
유럽·러시아	50개(55.5%)	35개(38.8%)	5개(5.5%)	90개
아시아·대양주	59개(52.6%)	49개(43.7%)	4개(3.5%)	112개
중동·아프리카	13개(72.2%)	5개(27.7%)	0개(0%)	18개
계	167개(53.3%)	132개(42.1%)	14개(4.4%)	313개

그 결과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대학이 167개(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발전단계는 132개(42.1%), 성숙단계는 14개(4.4%) 대학에 그쳤다. 특히 초기단계에서 학위과정 설치 단계 이전의 대학이 대부분 한국어에 치중되어 수업을 운영하는 흐름을 보였다. 발전단계의 대학(132개, 42.1%)들은 한국어를 중심으로 문학, 역사 등의 일부 인문학이 혼합된 양상이었으며, 대체로 기본적인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기·발전 단계 대학의 전임 교원 수는 대부분 2명 이하로, 학과 발전을 이끌어갈 교수직 인력의 상황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다. 성숙단계

8) 초기·발전·성숙 단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누었다.

단계	분류기준	
초기단계	기준 1-1	언어·교양과정 개설, 일부 부전공 개설
	기준 2-1	전임 교원 수 0-2명
	기준 3-1	언어과정만 개설
발전단계	기준 1-2	학부과정 혹은 석사과정 개설
	기준 2-2	전임 교원 수 3-5명
	기준 3-2	언어학, 인문학이 혼재하며 개설
성숙단계	기준 1-3	비중 있는 박사과정 개설
	기준 2-3	전임 교원 5명 이상
	기준 3-3	인문·사회 분야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주제별 접근

대학의 경우 교과과정의 표준성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 분야와 근대 정치·종교·경제 분야에 공통적인 관심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한국영화에 관한 폭넓은 관심이었는데, 초기·발전·성숙 단계의 대학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한국영화 수업을 폭넓게 개설하고 있었으며, 미술 이외에 여타 다른 예술 분야의 강의 개설이 미미하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한국영화의 약진과 더불어 영화라는 매체의 장점을 활용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측면과 딱딱한 한국학 수업에 흥미를 더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성숙단계로 진입한 대학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한국학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보였는데, 다시 말해 한국학 전공과 기존 분과 학문 안에서의 한국 연구의 개념이 서로를 인식하고 협업하거나 충돌하고, 또는 독립된 형태의 학제적 그룹을 형성하는 분위기도 일부 관찰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성숙단계에 속한 대학들이 한국학의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학문적인 풍토가 초기·발전 단계의 대학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한국학 전공이라는 개념은 독립된 학과나 분과처럼 뚜렷하지 않고, 국가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크게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학에 편중되어 전문 한국어 구사능력이 가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일부 한국문화나 사회, 역사, 문학에 대한 입문에 해당하는 과정을 거친다.

둘째, 지역학으로 분류되는 동아시아학이나 아시아학과 등에서 한국을 집중연구(concentration) 분야로 지정한 경우로, 이것은 미국에서 주로 관찰되는 개념이다.

셋째, 개별 학문 분과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은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등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형성되는데, 해당 분과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연구주제로 포함시킨 교수, 연구자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한국 관련 수업은 교내 한국학연구소(혹은 동아시아연구소)로 수렴되어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학연구소의 범위와 활약은 학교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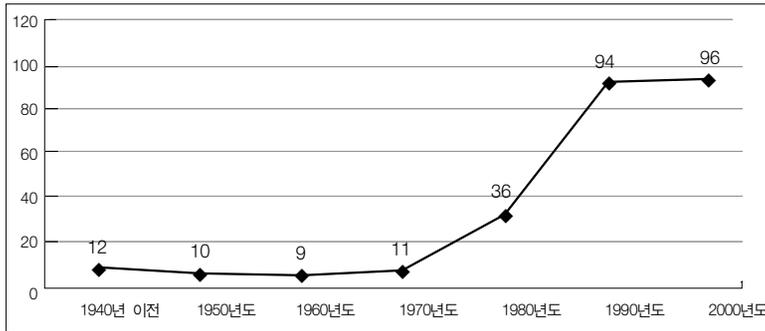


그림1-해외 대학의 한국학 수업 최초 개설연도

그 양상이 매우 달라 보인다.

또한 위의 두 자료(*Korean Studies Abroad*, 『해외한국학백서』)에서 해당 대학에 한국학 강좌가 최초로 설치된 시기에 응답한 학교 268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학이 최초로 설치된 곳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1897년 처음 한국학 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 수업 개설은 1940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198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 1990년도까지 20년간 아홉 배의 성장세를 보인다. 이 시기는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의 사업에 더하여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어 한국정부가 본격적으로 해외한국학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괄목할 만한 대열에 올라서기도 한 시기이며, 올림픽이 개최되어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한 시점이다.

특히 1950년 이전 한국학을 개설한 대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1950년 이전 개설 대학 수는 표5와 같이 13개교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을 기점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등으로 퍼져나간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초기 설치 대학 대부분이 모두 상당히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1950년 이전 한국학 개설 대학 13개는 초기단계 1개교, 발전단계 5개교, 성숙단계 7개교로 대부분 지금까지 발전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문적인 최초의 관심이 시작된 시점과 그것이 유지되면서 쌓은 경험적인 결과는 해외한국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외한국학 설치 대학 중에는

표5-1950년 이전 한국학 수업 개설 대학 목록

개설연도	국가명	대학명	단계
1897	러시아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성숙
1900	러시아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성숙
1916	일본	University of Tokyo	성숙
1925	일본	Tenri University	발전
1930	미국	Columbia University	발전
1942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발전
1944	프랑스	INALCO	발전
1944	카자흐스탄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발전
1944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성숙
1945	중국	Peking University	성숙
1946	영국	University of London, SOAS	성숙
1946	미국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성숙
1950	독일	Ludwig Maximilian University of Munich	초기

성숙단계에 해당하는 대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주요 국가별 특징

앞에서 한국학이 설치된 해외 313개 대학에 대한 발전단계별 분류에 따라 해외한국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았다. 초기·발전·성숙 단계의 대학은 지역적 특수성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환경적인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한국학이 다수 개설되어 있고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의 주요한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본다.

### 1) 북미 지역

냉전을 거치며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미국은 한반도와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 있으며, 학문적 인프라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한국학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우호적 혹은 비판적인 담론을 통해 국내 학계에 타자에 의한 자기 발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곳이자, 한국정부가 현지 한국학의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은 곳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한국학의 시작은 한국전쟁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에 파병되었던 미군이나 평화봉사단원들이 한국학 연구자가 되어 한국학의 기반을 닦은 시기와, 이후 1980-1990년대 한인교포들이 현지 한국학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 기존 학문 활동을 이어나가는 시기로 구분되기도 한다. 다만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라 여러 대학이 재정적인 지원을 줄여나가는 상황에 처해 있어, 버클리 등 일부 대학에서 한국학 수업 축소 등의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미국 대학의 한국학 운영의 주요한 특징은 한국어문학과 더불어 동아시아학이 뚜렷한 전공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이나 해외의 여타 지역이 한국어문학에 치우쳐 있는 것에 비해 미국에서는 한국학을 말할 때 동아시아학이라는 지역학과 한국어문학 분야를 모두 지칭한다. 다시 말해 미국 대학들은 한국어문학과 별개로 동아시아학 전공 내에 한국을 전문 영역으로 선택하는 형태를 보편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동아시아학의 흐름이 강해진 이유는 냉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지역 연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영향이 크다.<sup>9)</sup> 그러나 동아시아학 전공자의 학문적 범위는 기존 학문 분과의 그것과 같지 않다. 이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는 기존 학문 분과로 다시 재편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학으로 학위를 취득했을 때 기존 학문 분과 내의 유기적인 관계로부터 동떨어질 가능성에 놓이기도 한다. 신기욱 교수가 지적했듯이 미국 내에서 아시아학이라는 지역학이 기존 전통적인 학문 분과와 일으키는 긴장<sup>10)</sup>은 한국학이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체성의 문제로 남아 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은 역시 양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가장 많은 한국학 수업이 개설되어 있고, 질적으로도 성숙단계에 이르는 대학의 수가 가장 많다. 특히 보다 개방적인 학문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한인 교민사회가 바탕이 되는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한국학은 그 규모의 확장이나 학문적 다양성에서 타 지역에 비해 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 김경일, 「미국의 지역 연구와 사회과학」, 『사회과학연구』 Vol. 3(1996), 2쪽.

10) 신기욱, 「미국 학계 내 사회과학 분야 한국학 진흥 방안」, 『해외한국학백서』(2007), 310쪽.

## 2) 유럽 · 러시아 지역

유럽은 2004년부터 유럽 지역 학제 표준화를 위한 ‘볼로냐 프로세스’<sup>11)</sup>의 일환으로 학문적이고 방법론적인 연구보다는 고용시장을 염두에 둔 실용성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영향에 따라 한국학은 유럽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 대학이 취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영향은 더럽 대학의 한국학 폐지로, 옥스퍼드 대학 한국학의 폐지 위기로 이어졌고,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지역 한국학의 특징은 미국과 같은 지역학에 비해 한국어문학이나 인문학에 비중이 실려 있으며, 사회과학 분야의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타 지역에 비해 한국학을 수강하는 학생도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현지인이다. 한국과의 정치적·경제적인 관계가 상대적으로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은 아직까지 한국을 일차적인 이해당사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과 같이 지역 헤게모니의 장악에 필요한 지역학적 관심이나 현대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관심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19세기 말 이래 동양과 서양의 접촉을 계기로 개별 학자들의 진지한 관심에 의해 한국학 연구가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sup>12)</sup> 그러나 양적인 접근에서 취약할 수 있지만, SOAS, 파리7대학, 보훔 대학, 레이던 대학과 같이 역사적으로 한국학을 이어온 대학이 국가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럽 내의 한국학의 흐름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지역은 19세기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의 역사가 깊다. 특히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한국에 관한 연구를 그 어느 나라보다 일찍 시작하였지만, 정작 러시아의 한국학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875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하일 푸칠로는 ‘노한 사전’이라는 최초의 한-러 사전을 편찬하였고, 1897년에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는 기록이

11) 볼로냐 프로세스(영어: Bologna Process)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개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모여 2010년까지 단일한 고등교육제도를 설립, 유럽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9년에 출범한 프로그램이다. 그 후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도 참여해 회원 수가 47개국으로 늘었다.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르면 가맹국 내에서는 대학 졸업장 하나로 모든 나라를 넘나들 수 있으며, 유럽 어느 대학을 나오든 유럽 국가에서는 어디서든지 취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교육도 경쟁이 된 현 시점에서 유럽 대학들이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로 인해 인재 확보를 꾀할 수 있다(위키백과 인용).

12) 이완범, 「해외한국학 현황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 결과보고서, 49쪽.

남아 있는 범위 안에서 전 세계 최초로 한국학 강의가 시작되었다.<sup>13)</sup>

러시아 지역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문학을 비롯해 역사, 정치, 경제 분야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냉전 기간에는 북한학을 주로 연구했던 역사도 있고, 한소 수교 이후에는 한국학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서구권과 같은 경쟁 논리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아 전임 교수진의 수가 많은 편이다. 일례로 극동국립대학(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에는 한국학 관련 교수가 8명이며, 20명의 강사가 고용되어 있다. 전임 교수의 전공은 한국역사, 한국경제, 한국어학, 교포문화 등이며, 2005년 기준 208명의 학사전공생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한국학을 전공한 우수한 인력들이 한국학자로 남지 못하고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학계의 분위기는 과거 우수학자들의 연구업적을 이어갈 수 있는 후세대 인재를 배출하지 못함으로써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러시아의 한국학 연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러시아 한국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에는 고려인 등 한국문화의 역사적 흔적을 보유한 소수민족이 있어 한국학 발전 가능성이 비교적 더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3) 중국과 일본

192년 한중 수교 이전 중국의 한국학 연구는 냉전의 흐름에 따라 북한을 그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론과 연구 방법론 역시 북한의 것을 수용하였다. 이후 한중 수교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한국학은 한국어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사회, 문화, 경제 등의 기타 학문 영역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중국 내 한국어학에 대한 호응은 매우 열렬해 보인다. 최근 급격한 학생 증가로 현재의 교원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수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호소하거나, 한국학

13) 레브 콘체비치, 「러시아 한국학의 역사와 현황」, 『해외한국학백서』(국제교류재단, 2007), 445-446쪽.

14) Li Haiying, "Korean Studies Research in China: Focusing on the Shandong Region," *Korean Studies Abroad: Profiles of Countries and Regions*(Academy of Korean Studies, 2009), p. 101.

과 졸업생의 취업률이 100%인 점, 그리고 한국학과 입학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한국학 프로그램의 수강생 수는 대부분 100명, 200명을 넘고 있어 서구권의 학생 수와는 비할 바가 아니며, 이는 한국계 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실용적 요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관심은 깊이 있는 학문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해 일차적인 한국어 습득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의 한국학 학위체계에서는 한국학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곳이 매우 적고, 반면 학부에서는 선택과목이 아닌 정식 학위과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도 그러한 경향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한국어 습득에 대한 열의를 다양한 학문적 흐름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시아 지역의 한류나 한국어의 확산이 그대로 한국학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점<sup>15)</sup>이 제기되지만, 서구권이나 기타 지역의 한국학도 단순한 학문적인 호기심으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한국학은 그 역사나 깊이에 비해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의 한국학 연구는 다분히 목적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국학 분야의 한일 교류는 다소 부자연스러웠고, 한국정부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국학은 중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한국어 분야에 특화된 대학과 한국어 이외의 한국사나 사회과학적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는 대학의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특색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분야별 구분이 뚜렷한 일본 내 한국학의 현상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박사학위 과정으로 대부분 이어지고 있어 중국의 학위체계 흐름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한국의 경제력 확대나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 유입으로 인한 한류 붐에 따라 일본사회 전반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으로<sup>16)</sup>, 100명 이상의 수강생을 보이는 한국어문학 수업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한글능력검정시험수험생 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998년에는 수험자가 1,800명이었지만 2004년에는 9,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sup>17)</sup>도 일본의

15) 김동택, 「한류와 한국학: 해외한국학 현황과 지원 방안」, 『역사비평』(2006), 226쪽.

16) 송재목, 「일본 대학의 한국학 경향 및 해외 한국학 학회의 발전 방안-오사카경제법과 대학과 국제고려학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5 세계한국학자대회, 1쪽.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 지역에서 한국학 최초 개설 시기에 답변한 13개교 중 1970년대 이후 개설된 대학이 10개라는 점을 보았을 때도 일본은 20세기 후반 새로운 관심으로 한국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II. 해외한국학 발전요인과 사례

#### 1. 해외한국학 발전요인

앞서 시도한 양적 분석의 결과 국가별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성숙단계에 이른 14개의 대학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들은 여타 대학들과 비슷한 시작을 보였지만, 어떠한 특정 요인들로 인해 그 지역 한국학의 중심대학으로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이들 대학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발전요인들

표6-성숙단계 대학의 목록 및 최초 한국학 수업 개설연도

번호	국가	기관명	개설연도
1	러시아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1897
2	러시아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1900
3	일본	University of Tokyo	1916
4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1944
5	중국	Peking University	1945
6	영국	University of London, SOAS	1946
7	미국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946
8	미국	Harvard University	1952
9	프랑스	Paris VII Diderot University	1956
10	중국	Yanbian University	1972
11	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	1979
12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82
1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86
14	일본	Kyoto University	-
계		총 14개교	

\* 나열순서는 한국학 과목 개설연도순임.

17) 위의 논문.

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적 자료이기 때문이다. 우선 성숙단계에 해당하는 14개 대학은 표6과 같다.

다음으로는 성숙단계의 대학에서 발견되는 발전요인을 살펴보고 이후 일부 대학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별 요인을 살펴보겠다.

### 1) 외부적 요구

해외한국학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 혹은 한국학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현지 사회의 인식과 요구가 있어야 한다. 20세기 후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국경을 넘어선 교류가 다양해지고 학계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으나, 이러한 교류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해외에서 한국학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한국학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한국을 이해관계의 대상이자 파트너로서 인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해당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학이 필요하다고 인지될 경우 한국학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호주는 각각 정부에서 자체적인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학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 지역학 발전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sup>18)19)</sup> 미국에서도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더불어 늘어나는 한인교민들의 영향력과 이들을 학문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보였다. 캐나다의 UBC, 중국의 연변대학, 러시아의 극동국립대학과 같은 경우도 현지의 한인이주자, 고려인, 아시아계 문화의 강세 등

18) James H. Grayson,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Studies in Europe: Needs, Constraints and Prospects," 2009년 한국학국제학술회의: 해외한국학 현황과 전망(한국학중앙연구원), 98쪽.

19) 1985년에 영국에서는 피터 파커 경(Sir Peter Parker)의 리포트 'Speaking for the Future'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외교관계 성립과 지역학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 주요한 언어로 아랍어·중국어·일본어·한국어·터키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페르시아어를 꼽았다. 이로 인해 영국정부는 즉각 재원을 마련하여 해당 언어와 문화교육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으며, 그 결과 영국의 셰필드 대학(University of Sheffield)과 SOAS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학 연구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역학을 동시에 압박하였고, 영국에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 교민사회 집단이 없다는 점이 영국 내 한국학의 입지 구축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지역적·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거꾸로 남미나 아프리카의 한국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도 일차적으로는 협력 파트너나 관계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학교 당국의 정책적 지지로도 표출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해당 대학이 아시아학을 중심으로 학교의 성격이나 대표 분야를 특화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 이처럼 한국학은 역사학, 철학과 같이 학문 그 자체를 위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국가적 이익 창출을 위한 정책, 한인사회의 요구, 학교 당국의 특성화 정책과 같은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의 학문으로 해외에서 발전하고 있다.

## 2) 내부적 리더십

내부적인 리더십은 외부적 요구의 결과로 대학에 한국학 담당 전임 교원이 설치되어 발휘하는 리더십을 이른다. 해외의 한국학 분야의 선구적인 리더십으로 알려진 케이스는 파리7대학의 이옥 교수, 하와이 대학 손호민 교수, UCLA의 로버트 버스웰 교수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우며, 다수의 해외 한국학자들이 해당 지역 한국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들은 기본적인 한국학 강의와 연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중국학, 일본학과 가깝게 협력하여 동아시아학 내에 한국학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 당국이나 교민사회와의 다양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과의 역할을 넓혀가는 동시에 한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학과 내의 핵심적인 리더십이 외부의 요구와 만났을 때, 추가적인 교수 임용이나, 학위과정 설치, 한국학연구소 설치 등 학과의 범위와 위상 확대가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위의 14개 성숙단계의 대학은 대부분 내부적인 인적 자원 확보나 리더십 계승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리더십이 후세대 학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한국학의 발전은 모멘텀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러시아나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 저명한 한국학자의 작고 이후 그에 이르는 영향력이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후세대가 등장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 내부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 3) 한국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국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해외한국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시작된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의 해외한국학지원사업(2006년 한중연으로 이관)과 1990년대 지원 규모가 커진 국제교류재단의 해외한국학 진흥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며, 2000년대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도 해외한국학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여 많은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된 시기는 앞의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한국학 개설이 1980년대 세 배, 1990년대 아홉 배로 늘어난 시기와도 일치한다. 특히 재정적인 지원은 단순히 물적 기반을 넓히는 것과 더불어 대학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해외 한국학자들은 한국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유치한 경우 교내에서 주도적인 입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국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끌어오기 위해 학교 측의 추가예산 배분 등의 대응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결과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해외한국학의 영세성이나 지역학으로서의 소외를 어느 정도 해소해 왔고, 성숙단계에 있는 대학들도 대부분 이를 통해 한국학 발전의 추진력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어떤 방식을 취할 때 해외한국학 발전에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추후에 다시 언급해보기로 하자.

더불어 부차적인 요인으로 해외의 대학이 한국학을 개설해서 이를 유지, 발전시켜온 기간은 어느 정도 한국학의 성공적인 안착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앞서 표6에서 살펴본 성숙단계에 이르는 14개 대학 중 한국학 최초 설치 시기에 응답한 13개 해외 대학의 평균 설립연도는 1947.7년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학은 1980-1990년대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각 대학이 한국학을 개설하여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기간은 해외한국학 발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학의 외부적 요구나 내부적인 리더십이 약화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학이 외부적·내부적인 요인이나 재정적인 지원으로 초기에 발전하거나 안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일정 수준의 규모나 학문적 전통을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학 발전의 가능성을 유지, 확대시킨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성숙단계 대학의 사례

위에서 살펴본 발전요인들은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학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세 요인이 고르게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고 그중 한두 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세 요인이 모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에서는 14개 성숙단계의 대학 중 앞서 제시된 발전요인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는 대학의 사례를 찾아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해외한국학이 발전하였는지 알아본다.

### 1) UCLA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는 1986년 비교적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미국 내 한국학 중점 대학의 위상을 갖추었다.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자면 1970년대 말 UCLA와 USC는 동아시아 협력센터를 통해 중국학과 일본학은 UCLA에서, 한국학은 USC에서 가르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민자 1.5세대 혹은 2세대의 한인학생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UCLA에 다수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 강좌개설을 학교 측에 요구하였고, 학교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1986년 한국어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sup>20)</sup> 같은 해 한국학 교수(Robert Buswell)를 처음으로 임용하였고, 3년 만인 1989년에는 2명(Peter Lee: 문학전공, John Duncan: 역사전공)의 교수를 추가 임용하였다.

1992년에는 당시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에 한국학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교수와 강사진을 추가 임용하여 그 범위를 확장한 결과 한국학 학부과정을 설치할 수 있었고, 동아시아어문학과를 벗어나 독립적인 '한국어문학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교수직 설치 사업 등 한국정부의 지원이 UCLA 내 한국학 확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sup>21)</sup> 1993년에는 '한국학 센터'를 설립하여 학교 내 협력을 강화하였다. 현재 UCLA에는 한국어문학, 동아시아학 한국전공, 아시아-인문학 한국전공으로 나누어지는 세부

20) John B. Duncan, 이메일 인터뷰, 2012년 6월.

21)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UCLA에 설치한 교수직은 3석으로 분야는 역사, 지리학, 미술사이다.

학문 분과 아래에서 학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석·박사 과정은 개별 분과로 나누어지지만 특히 역사, 언어, 불교학, 문학의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대학원생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UCLA에 대한 외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매우 활발한 편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기금과 지원금, 특히 한인 교포사회의 지원과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UCLA 한국학센터는 2000년 이후 275만 달러(2009년 기준)의 기금을 모금해 재정적인 기반도 갖추어져 있다.<sup>22)</sup> 현재 UCLA에는 10명의 종신 재직권 혹은 테뉴어 트랙 교수진(TTP)이 있으며, 해마다 2,000여 명의 학생이 이 학교에서 한국 관련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매년 40여 개의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고, 미국 본토의 대학 중 가장 먼저 한국어문화 분야의 학부 전공이 설치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UCLA의 핵심 발전요인에 대해서 한국학연구소장인 존 던컨(John B. Duncan)을 이메일 인터뷰하였는데, 위에서 제시한 한국학 발전요인과 대체로 동일한 의견을 주었다. 첫째, LA의 한인학생의 수요, 둘째, 대학 당국의 방침, 셋째, 동아시아어문학과와 한국학에 대한 지원, 넷째, 한국 학연구소와 한국학 소장의 리더십을 UCLA의 핵심 발전요인으로 보았다.

UCLA의 한국학 발전은 앞서 언급된 ‘외부적 요구’와 ‘내부적 리더십’, 그리고 ‘한국정부의 지원’이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LA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한인 인구가 가장 많고, 특히 1980년대 후반은 한인 이민자 1.5세대 그리고 2세대의 한국학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현지 한인 교민사회가 조성하는 사회적 요구는 학교 당국의 정책적인 지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UCLA의 한국학 교수 10명 중 4명은 외부의 지원으로 채용되었고, 나머지 6명의 교수와 4명의 강사는 모두 학교 당국의 재정으로 채용된 인력이다. 학교의 이와 같은 지원은 LA 지역 한인사회의 규모와 UCLA에 해마다 다니는 3,000명 이상의 한인 학생과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sup>23)</sup> 더불어 로버트 버스웰, 피터 리, 존 던컨 등 한국학 분야의 초기 임용자들이 한국학 개척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직책을 겸하면서 한국학 발전을 견인하는

22) UCLA 한국학센터 홈페이지, <http://www.international.ucla.edu/korea/>.

23) Johan B. Duncan, 이메일 인터뷰, 2012년 6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직 설치를 통한 초반의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은 적절한 시기와 형태로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중핵대학육성사업 또한 남미 지역 한국학에 대한 견인차로서 UCLA의 새로운 활동영역을 지원하고 있다.

## 2) 하와이 대학(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에드워드 쉘츠(Edward Shultz) 교수에 따르면 하와이의 한국학은 1943년 한미문화연합(Korean American Cultural Association)에서 하와이 대학에 한국과 관련된 책을 기증하면서 한국학 도서 소장의 첫 문을 열었다. 당시 하와이 대학은 이미 아시아학을 중점화해서 학교를 특화시키고자 하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1919년 College 단위였던 대학을 University로 격상시킨 가장 큰 이유도 하와이 대학을 범태평양 연구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던 대학 자체의 전략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sup>24)</sup> 그런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1921년 하와이 대학은 중국어와 일본어 수업을 시작하였고, 1928년에는 동양학부(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를 설치하였으며, 1930년에는 태평양관계연구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에서 미국 아시아학 랭킹 3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수의 학생이 아시아인이었으므로 학교에서 아시아학에 관심을 쏟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여 최초의 한국어 수업은 1954년에 시작되었고, 1971년 손호민 교수가 최초로 임용되고, 1972년 중국학에 앞서 한국학연구소가 먼저 설치되면서 문학, 사회학, 역사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자들이 임용되는 등 확장의 일로를 걸었다.<sup>25)</sup> 1980년대 말에 한국어문학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였고, 1995년에 한국어 학사과정을 개설하였다.<sup>26)</sup> 포드재단(Ford Foundation)에서도 하와이 대학을 미국 내 한국학이 안착된 5개교에 꼽았으며,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 지원금을 수혜 받아 강사직을 추가 설치하고,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4) Edward J. Schlitz, "Recent Trends in Korean Studies in North America: Korean Studies in Hawaii as a model," 2005 세계한국학자대회, 105-106쪽.

25) *Ibid.*

26) 손호민, 「해의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의 현안」, 『2011년 한국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8쪽.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 더하여 현지 한인교민들의 지원과 영향력은 하와이 대학 한국학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sup>27)</sup> 하와이 한인 이민의 역사는 100년이 넘으며 높은 교육열로 한인 2세대들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내륙 지역의 대학 대신 하와이 대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한인사회 배경은 하와이 대학 한국학에 재정적 혹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하와이의 한국학은 스스로 생존경쟁에 몰리거나 존재의 이유를 치열하게 증명해야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또한 손호민 교수 등 초기 임용된 교수진들은 한국어문학의 학위과정 설치 및 교원임용, 교수법 개발 등에 헌신하며 하와이 대학의 한국학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하와이 대학 한국학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 센터는 인문학, 사회과학 등 각 학과로 분산된 힘을 끌어 모으고, 한국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 대학은 한국어문학 이외에 다른 분야는 해당 분과 내에서 각기 지도받는데, 정체성의 고민을 안고 지역학으로 정착한 미국 내륙의 대학들에 비해 분과별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로 발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3) SOAS

영국의 대표적인 한국학 설치 대학으로 런던 대학 소속의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를 꼽을 수 있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대규모 한인 교민사회의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고, 수강생의 대부분이 교민 자녀가 아닌 현지 출신이라는 측면에서 위의 두 대학과는 환경적 차이점이 있다. SOAS에서 나타나는 일차적인 외부의 요구는, 학교의 설립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정책적으로 주도된 측면이 강하다. 런던 대학 소속 SOAS는 1916년 처음 세워진 학교로 제3세계 및 식민지의 효율적 경영과 관련해 외교관이나 국가 공무원 및 정보원 등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8)</sup> 또한 1946년에는 스카보로 보고서

27) *Ibid.*

28) 연재훈, 「영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와 교육 현황: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3호(1999), 81쪽.

(Scarborough Report)에서 타 유럽 지역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연구 범위의 제한성을 인식하여 SOAS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sup>29)</sup> 1960년대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의 다변화 등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정부로부터 특수지원금(special factor funding)을 받고 발전하여 지금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학에 관한 유럽의 중심적 연구센터가 되었다.<sup>30)</sup>

내부적인 리더십의 흔적으로 1953년 유럽에서는 최초로 윌리엄 스킬렌드(William Skillend) 교수가 한국학 전임 강사로 취임하면서 정식 과목으로 채택<sup>31)</sup>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 후 1989년 연재훈 교수가 임용되고, 같은 해 단독 학위과정이 생기는 등 전임 교수진이 늘어나면서 내부적으로 핵심적인 추동력을 가지게 되어 유럽 지역의 대표적인 한국학 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설립 시기와 관련해서도 최초의 한국학 수업이 1946년에 시작되어, 여타 대학에 비해 한국학 발전이 시기적으로도 앞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SOAS의 발전에 기여하였는데, 1987년에 한국학연구센터가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학자들과 초청 연구를 진행해왔다. 또한 2006년 SOAS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중핵 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지원을 받았다. 이 사업의 결과 한국학 분야의 교수직이 추가로 설치되고, 사업 기간인 5년 이후에는 대학 자체 재원으로 교수직을 영구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성과이다. 더불어 SOAS는 이 재원의 일부를 한국학연구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해외 학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학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29) SOAS 홈페이지, <http://www.soas.ac.uk/about/history/>.

30) 연재훈, 앞의 논문, 81쪽.

31) *Ibid.*

#### IV. 해외한국학 지원정책에 관한 제언

정부의 해외한국학 지원정책은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학 발전요인의 하나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대학을 대상으로 한국학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일은 국가별 환경적 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화하기 어렵고 그 효과를 측정하기도 힘들다. 다음에는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에서 해외한국학 지원정책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을 집행하기에 앞서 그들이 어떤 판단을 바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들의 외부적 요구와 내부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적인 리더십이 갖춰지는 시점을 잘 관찰하여 재정적 지원의 방법과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기관의 해외 지원은 한국학자들의 재정적 요구나 지역적 현상에 뒤늦게 맞춰가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은 매스컴에서 특정 대학의 해외한국학 폐지에 대해서 이슈화되면 뒤늦게 손을 쓰는 방식이 이어진 것이 일례가 되겠다. 반면,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은 매년 자체적으로 해외 일본학 현황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5억 엔(한화 약 7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며 일본학 지원 사업의 발전과 사업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sup>32)</sup>

또한 한국학 지원기관의 사업운영 방식도 해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해외의 요구와 현황에 대한 파악이 부재하다면, 그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형태의 지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외 한국학자들은 언어와 시간의 제약에 따라 해당 공모에 관한 정보에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누가 먼저 알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정적 지원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어나는 현상에 뒤처지는 정보력으로 사업을 이어나간다면, 발전 없이 현상 유지에 머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한국학의 연구와 교육 동향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해외

32) 이완범, 앞의 논문, 41쪽.

한국학자들과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해외의 학자들과 더욱 긴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한국학 지원기관 내에 해외한국학 분야의 지역별 전문가를 두어 해당 지역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가나 지역별로 형성된 현지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결과적으로 한정적인 재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양한 한국학 지원 사업의 결과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사업운영 기관이 상이함에 따라 지원이 중복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사업운영 결과물 평가에 머물러, 해당 학교의 발전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정적 지원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해외한국학의 발전과 향후 발전 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한국학의 외부적·내부적 환경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외한국학 지원은 현지의 한국학 운영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현지 기관의 의존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건 없는 지원과 사후관리의 부실은 자칫 결과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지 않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현지 대학의 역량과 한국의 지원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점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매칭펀드 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공동대응 형태의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해외한국학 지원은 현지에서 한국학 기관이 자생력을 가지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구권 중심의 해외한국학 발전과 지원의 편중 현상에 대하여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서구권의 대학들도 그들이 해외한국학 분야에 앞서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잘하는 선수를 지원해서 그 역량의 최고점을 찍어보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나 동남아시아의 한국학의 수요와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재원으로 미미한 효과를 내는 서구권 지원에 비해 적은 재원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비서구권에 관심을 두고 향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현지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위의 통계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외한국학 교원의 고용 환경이나 질적 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현지에서 양질의 교사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외한국학 교원을 재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한국학 교수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한국학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학문적 역량을 심화시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V. 맺음말

이 글은 앞서 해외에 한국학이 개설된 313개 대학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이들을 초기·발전·성숙 단계로 분류하고, 성숙단계 대학의 사례를 일부 살펴봄으로써 해외한국학의 발전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당 국가나 지역사회, 학교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성되는 외부적 요구와, 그와 연결고리를 형성해가는 내부적 리더십, 그리고 한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주목하고 이들을 핵심적인 발전요인으로 보았다.

특히 해외한국학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촉매제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느리게 진행되는 현상에 어느 정도 가속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기관의 의지만으로는 한국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그 주체는 타자의 시선으로 한국에 관해 연구를 이어나가는 해외 한국학자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 추진이나 판단으로 우리가 가진 한정적인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학과 같이 재정적인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학 지원은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형태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찰과 의견 교환의 과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한국학들은 그들이 처한 지역의 내재적 필요와 요구, 정치·사회 및 지적인 배경들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 제기와 연구 내용 및 지향을 가지게 되었다.<sup>33)</sup> 이러한 배경에서 해외한국학은 해외와

33) 김경일,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Vol. 64(2003), 132쪽.

한국을 이어줄 인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길이고, 그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정교하고 두터운 시간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분량의 한계로 인해 북미주나 유럽의 사례가 증점적으로 소개되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지역의 사례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의 한국학 설립 배경은 상대적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자료를 찾기도 어려워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적 연구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해외한국학 지원 전략수립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 참 고 문 헌

- 김경일, 「미국의 지역 연구와 사회과학」. 『사회과학연구』 Vol. 3, 1996, 1-18쪽.
- , 「한국학의 기원과 계보: 한국과 동아시아,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Vol. 64, 129-165쪽.
- 김동택, 「한류와 한국학: 해외한국학 현황과 지원 방안」. 『역사비평』, 2006, 213-240쪽.
- 김중순, 「문화학으로서의 한국학: 특히 동아시아 한국학을 위하여」. 『한국학논집』 제38집, 2009, 195-225쪽.
- 레브 콘체비치, 「러시아 한국학의 역사와 현황」. 『해외한국학백서』, 2007, 445-446쪽.
- 손호민, 「해의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의 현안」. 『2011년 한국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1-52쪽.
- 송재목, 「일본 대학의 한국학 경향 및 해외한국학 학회의 발전 방안—오사카경제법과대학과 국제고려학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2005 세계한국학자대회, 1-9쪽.
- 신기욱, 「미국 학계 내 사회과학 분야 한국학 진흥 방안」. 『해외한국학백서』, 2007, 308-320쪽.
- 연재훈, 「영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와 교육 현황: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3호, 1999, 79-99쪽.
- 이길상, 「21세기 한국학의 진로모색」. 규장각 창립 230주년 기념 한국학국제학술회의, 2006.
- 이완범, 「해외한국학 현황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과제 결과보고서, 1-201쪽.
- 은기수, 「미국의 자국학 연구: 세계화 속에서 한국학 연구의 가능성」. 『정신문화연구』 제25권 제1호, 2002., 155-173쪽.
- 조지형, 「미국에서의 한국학의 흐름과 전망: 안과 밖의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미국사연구』 Vol. 15, 175-219쪽.
- 존 B. 던킨, 「미국 내 한국 전근대사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No. 23, 1997, 170-188쪽.
-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Academy of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Abroad: Profiles of Countries and Regions*.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Edward J. Schultz, “Recent Trends in Korean Studies in North America: Korean Studies in Hawaii as a model.” 2005 세계한국학자대회, 105-114쪽.

James H. Grayson,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Studies in Europe: Needs, Constrains and Prospects.” 2009년 한국학국제학술회의: 해외한국학 현황과 전

망, 한국학중앙연구원, 97-117쪽.

Li Haiying, "Korean Studies Research in China: Focusing on the Shandong Region." *Korean Studies Abroad,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9, pp. 98-107.

## 국 문 요약

이 글의 목적은 해외한국학의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학 발전이 성숙단계에 이른 기관을 준별하여, 이 기관들이 어떻게 한국학 발전을 이루었는가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 분석은 한국학 발전 도상에 있는 기관들의 발전을 기획하고 지원할 때 참고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09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된 *Korean Studies Abroad*와 2007년 국제교류재단에서 발간한 『해외한국학백서』의 자료 313건을 분석하여 해외한국학의 현황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해외한국학 개설 대학을 ① 전공과정 설치 형태, ② 전임 교원의 수, ③ 개설 과목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가장 성숙된 형태의 14개 해외한국학 개설 대학을 도출한다. 또한 성숙단계 대학의 핵심적 발전요인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조성되는 외부적 요구와 그와 연결고리를 형성해가는 내부적 리더십,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주목하였다. 그 실증적 사례로 UCLA와 하와이 대학, SOAS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발전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투고일 2012. 7. 2.

수정일 2012. 8. 13.

게재 확정일 2012. 8. 23.

주제어(keyword) 해외한국학(Korean Studies abroad), 정책(Policy), 소프트파워(Soft power), 한국학(Korean Studies)

